



아동문학

2007년 가을호 (루게 제 120호)



연변인민출판사

아동문학

중국조선족순수아동문학전문지

2007년 가을호

(루계 제120호)

연변인민출판사

아동문학가 리태학선생님 앨범



작품구상을 알차게 무르익히며



원고편집을 마치고



영예란앞에서 동료들과 함께



편집위원회 (가, 나, 다 순)

주 임: 김현순

위 원: 김득만

김만석

김철호

리태학

리영철

방복순

전복록

최문섭

한석윤

허호범



도서질감독전화

0433-2902102

0433-2902135

편집부주소

延吉市友谊路363号

延边人民出版社

《儿童文学》编辑部

우편번호: 133000

차 례



소 설



001/ 사과배아이들.....리혜선

039/ 신비한 양몰이군.....리태학

087/ 오누이.....박초란



동 화



074/ 복짐이와 거울속에서

나온 아이.....강 길

127/ 천하오락성.....리영철

081/ 저가락과 포크.....한 삼

107/ 민들레.....오카 슈조

148/ 미니꿀꿀이 바비.....양 봉



수 필



068/ 골짜기강이 산을 키운다...정문준



차례

114/ 고향의 별.....방 란

145/ 크레용.....김동석



동시한바구니

029/ 우리 할머니(외 11수).....김 파

118/ 봉숭아꽃(외 9수).....김동진

170/ 산과 시내물과 땀(외 5수)....박문파



우 화

167/ 시상식.....유춘강



작가이야기

176/ 생활의 옥도에서 풍년을

거둔 글농사군...허 범



기획조명

189/ 김현순자선동시묵음.....김현순

주 필: 김현순

책임편집: 방복순

책임교정: 최순란

기술설계: 정려란





차례



평론



198/ 박찬 사나이 가슴에도

동심은 피여나는가.....림 철

209/ 동시문학과 그 창작에

대한 소감 ABC.....김현순

165/ 친엄마보다 더 짙은 《엄마》사랑.....목아금



인터뷰



218/ 아동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림송희 강명화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儿童文学. 2, 秋季版: 朝鲜文/ 金贤舜主编.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7. 9

ISBN 978-7-80698-915-9

I. 儿... II. 金... III. 儿童文学—作品综合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8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7) 第076818号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印刷: 图们市日升印刷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7 字数: 20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80698-915-9 / I 155 (民文)

版次: 2007年9月 第1版 2007年9月 第1次印刷

定价: 12.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사과배아이들

리혜선

1908년, 함경북도의 어느 아름다운 시골이다. 나지막한 골짜기에 아담한 마을이 그림처럼 아스라니 보이고 주변을 둥그렇게 둘러싼 산등성이는 온통 울긋불긋 가을에 물들어있다. 하지만 마을은 어딘가 수심에 잠긴듯했다. 일제가 검은손을 뻗쳐 오는 때여서 조선은 팔도강산 그 어디나 나라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젖어있었다.

찌그러져가는 기와집서당에는 빈자리만 가득하고 학생은 하나뿐이다. 서당집 맏손자인 열두살짜리 최창호이다.

할아버지인 훈장은 회초리를 들고있고 최창호는 열심히 공부를 한다.

《하늘 천, 땅 지, 누를 황...》

잠시후 할아버지가 자리를 뜬것을 보고 창호는 살그머니 서당을 빠져나왔다. 창호는 엄마가 퇴마루에 서서 홀로 흐느끼고있는것을 보았다.

《엄마가 울고있다니!》

창호는 깜짝 놀랐다.

창호는 살금살금 할아버지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앞에 무릎을 꿇고있다. 창호는 또 한번 놀랐다.

《무슨 큰일이 생긴걸까?》

창호는 가슴이 뛰었다.

《…청국으로 가면 살길이 나아진다고들 하는데…》

아버지의 나지막한 말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벼락같이 터져나온다.

《이 불효막심한 놈아, 선산을 어찌 버리며 이 땅을 어찌 등진단 말이나…》

할아버지는 노하여 요란스레 기침을 했다.

《아버지, 더는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수는 없습니다! 남의 땅에 가서라도 자식들은 살려야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앞에서 이렇게 높은 목소리로 말하는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었다. 창호는 두려워 온몸을 떨었다.

《죽기를 기다리다니! 남의 땅이라니! 청국은 어떤 곳인가?》

창호는 집을 나서 산등성으로 향했다. 마을쪽으로부터 산등성으로 가리마같이 뻗은 오솔길이 있다. 창호는 걸음이 조금 흔들리는듯하고 얼굴은 창백하다. 두려움이 가득 어려있다.

누렇고 불그레한 개암나무들이 다복다복 들어앉은 산등성이다. 들국화와 이름 모를 꽃들이 가득 핀 평퍼짐한

곳이 있었다. 한가운데는 수수대로 엮어짠 노란 방석이 반짝반짝 빛나고있다. 방석이 답답한듯 조금씩 들썩거리는것은 밑에서 작은 다람쥐가 장난치기때문이다.

그우에 빨간 사과 두알이 아름다운 공주처럼 얹혀있었다.

《아, 사과!》

창호의 두눈이 반짝 빛났다.

갑자기 창호는 귀를 기울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이들이 킁킁거리는 소리가 숲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소가 음메- 하는 소리, 누렁이가 멍멍하는 소리들도 들려왔다.

《혀-어-영, 우-릴-찾-아-봐-아-》

창호의 얼굴은 점차 붉은 빛을 띠었다. 주위를 둘러보는 눈에 반짝 생기가 돌았다.

창호는 획- 하고 휘파람을 불었다. 누렁이가 날래게 뛰어왔다.

숲속에서 까르르 웃음보를 터뜨리는 애는 리운이라는 여덟살난 계집애다. 소등우에 걸터앉아 둥그런 꽃다발을 내젓는다. 차례로 나타난 영호, 범두, 창선이는 창호의 동생들이다.

막내 창선이가 되똥되똥 달려왔다.

《형, 사과누나, 사과!》

창선이가 입에 물었던 손가락을 빼고 사과와 리운이를 번갈아 가리켰다.

《참아야지!》

셋째형 범두가 사납게 눈을 흘겨왔다.

선심을 쓰기 좋아하는 리운이가 《사과누나》로 되었

다. 리운이의 집에는 커다란 사과나무가 있다. 리운이가 사과를 주겠다고 해서 창선이의 생일파티가 이 아름다운 숲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리운이는 나무죽한 얼굴에 예쁘게 생긴 커다란 쌍접눈을 가지고있었다. 전주 리씨 량반집딸이었던 엄마가 있어서 들은 이야기가 많은데다가 천성적으로 쾌활한 이야기꾼이다. 알팍한 입술을 나풀거리며 재미있는 이야기와 소꿉놀이를 곧잘 꾸미곤 했다. 집안일때문에 뒤숭숭하고 두려웠던 창호지만 수다쟁이 리운이를 보자 금방 즐거워졌다.

목에 커다란 꽃다발을 건 창선이는 사과를 넉적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하지만 셋째형 범두가 무서운 얼굴로 지키고있어서 흘끔거리기만 했다.

범두는 얹은 식구들을 세며 손가락을 폈다짚았다했다. 사과는 두알뿐이니 반쪽씩 쪼개면 어떻게 되나? 또 한번 더 쪼개면 어떻게 되나? 범두로서는 아무리 머리를 쥐여짜도 계산이 나오지 않았다.

괴상한 생일상이었다. 상에는 사과외에도 산열매들과 나무잎, 돌맹이, 풀씨들이 울긋불긋 가득 올랐다. 참 재미있는것은 리운이에게서 이런것들이 죄다 멋진 이름을 가지는것이다.

《이건 사과요, 이건 국수와 쌀, 송편, 경단, 무지개떡이니라.》

《아, 떡! 참 맛있겠는데!》

아이들은 갖가지 맛있는 떡을 상상하자 눈길이 황홀해졌다.

《이건 활이요, 이걸 잡으면 무사가 되리라...》

《아! 무사!》

《이건 부귀를 누릴수 있는 돈이니라!》

《아아!》

《이건 붓하고 먹과 벼루, 책이니, 이걸 먼저 잡으면 학문을 닦아 문관이 될것ियो, 국수와 실타래를 잡으면 무병장수하리라...》

창호는 킁킁거리고 영호와 범두는 깔깔거리고 창선이는 손가락을 입에 문채 사과만을 노려보며 짜증을 냈다.

리운이는 량반집 로부인을 본판 소꿉놀이에 신이 났다. 몽당치마지만 기다란 비단치마를 입은척 치마자락을 척 뒤로 올리는 시늉을 한다. 그제야 생각난듯 《할아버지》인 창호에게 나무가지를 곱방대 삼아 물리고 그옆에 바르게 앉는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길게 늘어뜨리며 분부한다.

《자, 아가야, 마음에 드는대로 잡아보게나, 여기 놓인 이 많은 복록이 다 자네것이니네, 이 사람아!》

겨우 참았다는듯 창선이는 사과 두알을 덩석 집어들었다.

리운이가 박수를 짹 치며 길게 소리 질렀다.

《사과를 잡으면 자손이 번-창-하-리-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우우우 숲을 흔들었다.

창선이는 재빨리 사과를 한입 툇 떼었다. 아! 너무나 무 맛있다.

범두가 짹 소리를 질렀다.

《왜 혼자 먹어? 이 먹보야!》

《생일이니까 혼자 먹어도 돼.》

영호가 창선의 편을 들며 범두를 쏘아주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 혼자 먹으면 욕심이 불어난다고…》

《생일이니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창선의 입안에서 가득 부서져내리는 사과소리를 듣자 아이들은 일제히 새콤한 침을 꿀꺽 넘겼다.

소를 물고 산을 내려오며 리운이가 쫓알거렸다.

《나 소 모는거 제일 싫어! 아버지만 계셨어도 소몰이는 안한댔어. 엄마는 어렸을 때 규방에서 바느질하고 시를 지으셨대.》

《청국이란 어떤 곳일까?》

창호는 또 《청국》을 생각했다. 할아버지가 몹시 화를 내는것을 보아 《청국》이란 썩 좋은 곳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맥이 빠졌다.

《엄마는 병풍도, 보료도, 아빠 부시쌈지까지도 다섯 가지 색으로 꽃무늬를 수놓았대. 소몰이가 질색이야…》

《우린 청국 갈거야.》

갑자기 창호는 이 무서운 말을 하고말았다.

《청국?!》

《그래, 청국 말이야.》

리운이는 깜짝 놀랐다.

《아주 먼곳이지?》

《응, 아마…그럴…거야.》

리운이는 얼굴빛이 새침해졌다. 리운이도 먼곳으로 가고싶었다. 어딘가 먼곳에는 배고픈 일도 없는 참으로 행복

한 곳이 있을것 같다. 그리고 창호네가 자기네를 두고 어디론가 간다는것도 견딜수 없었다.

《청국은 어떤 곳이지?》

《몰라, 저-쪽, 북쪽이래. 할아버지가 굉장히 화내고 있어.》

《북쪽은 해님이 없는 곳이잖아! 해는 언제나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돌아 서쪽으로 가거든. 청국, 해없는 곳에는 시퍼런 구렁이가 득실거린대. 우리 엄마, 그런 곳 안간댔어.》

《구렁이?》

창선이가 깜짝 놀라 창호곁에 바짝 다가섰다.

《이만큼 길구, 이만큼 굵구, 시-퍼런 구렁이 말이야, 이만큼 길구, 이만큼 가느다란 혀를 나불거리면서 날름 잡아먹으려고 할거야!》

리운이가 얼굴을 험상궂게 만들고 두팔을 힘껏 벌려 구렁이를 설명했다.

《아니야, 청국 너무 나쁜 곳은 아닐거야!》

《해가 없는 곳이야! 구렁이가 득실거리고 말이야!》

《울 아빠가 말했어. 청국 안가면 다 죽어버린대!》

창호도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에 놀라며 리운이 엄마가 달려왔다. 리운이 엄마는 부랴부랴 창호네 집으로 갔다. 창호네 마당에는 많은 엄마들이 모여 창호 엄마와 함께 울었다.

그날 밤, 창호는 꿈에 술한 구렁이를 보았다. 시퍼렇고 굵었는데 가느다란 혀를 기다랗게 나불거렸다.

《구렁이, 구렁이... 나 청국 안갈래, 싫어, 퍼런 구렁

이...》

창호가 헛소리를 쳐서 온 집이 놀라 깨었다.

그런중에 1909년의 설이 왔다. 집은 청국으로 떠날 준비로 뒤숭숭했다.

《사, 과, 누, 나, 사과!》

창선이가 되똥거리며 문쪽으로 달려가 리운이에게로 손을 내밀었다.

리운이의 소가 울긋불긋 리봉으로 가득 치장하고 방울을 울리며 어디론가 떠나고있었다. 리운이는 연신 코노래를 불렀다. 창호는 짜증난 소리로 물었다.

《어딜 가는거니?》

《집으로 가는중이야!》

《너희 집은 이쪽이잖아!》

창호가 얼굴을 찌프린채 머리를 뒤쪽으로 뻗 저어보였다.

《소가 가는거야, 자기 집으로.》

《왜?》

《나도 청국 가!》

《뭐, 니네도?!》

창호는 놀라서 소리를 쳤다.

《청국 굉장히 좋은 곳이라. 엄마가 말했거든, 청국 가문 소를 안몰아도 된대. 난 공부하고 바느질하고 자수만 하면 된대. 난 이제 내 옷에도 예쁜 매화꽃 수놓아 입을거야...》

《청국, 해가 없는 곳이라 했잖아?》

《청국 가면 배불리 먹을수 있대. 송편이랑 경단이랑

무지개떡이랑도 먹을수 있대.》

리운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종알거렸다.

《그동안 너무 심했어. 미안해. 엄마가 되면 소식 전해줘, 알았지?》

리운이는 소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얼굴에 가득 웃음을 찰랑이는 리운이를 보며 창호도 어느새 청국이란 곳이 좋아진다.

눈이 내린 길을 마을사람들이 짐을 이고 지고 하여 여러날을 걷고 또 걸었다.

《아, 해가 없는 청국은 멀기도 하구나!》

창호는 발이 아파 땅에 쭈그리고 앉아 이렇게 한탄했다.

드디어 마을사람들은 온갖 고생을 겪으며 백두산 동쪽 기슭에 이르렀다.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지휘에 따라 제상을 차리고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백두산신령님이시여, 어서 내 나라를 건져주시옵고 당신의 백성들을 하루속히 조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옵소서!》

창호네는 산을 세개나 넘었다. 이제는 한발자국만 더 걸어도 죽을것 같았다. 멀리에 높은 산 두개가 가지런히 안겨왔다. 어른들은 두 산의 모양이 엄마들의 젖처럼 생겼다고 내두산이라 불렀다.

어른들은 땅굴을 파고 마른풀로 지붕을 씌워 움막을 지었다. 그런 움막 일곱채가 그들의 새 동네였다. 주위는 눈이 덮인 산과 마른 풀대들이 흔들거리는 들이 있을뿐이다. 그우로 바람이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쓸고 다녔다.

《리운이는 참 거짓말쟁이야, 이곳에도 해가 있는 걸.》

아침에 뜨는 해를 보며 창호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해는 없어두 돼, 사과나무는 있었으면 좋겠어. 그치, 창선아?》

창선이의 손을 잡은 범두는 리운이네 움막쪽을 바라보며 코를 별름거렸다.

버려져있던 산과 들을 불태워 밭을 일구는 일은 정말 힘들었다. 어른들은 너무 일이 많아 고양이손이라도 빌리고 싶어했다. 창호와 영호도 밭에 나가서 일손을 거들었다. 범두는 창선이를 돌보았다.

창선이는 파리하게 야위여가며 앓기만 했다. 청얼거리며 범두에게 트집을 걸었다.

《사과, 사과...》

범두는 화가 나서 어디론가 가버렸다. 창선이곁에는 누렁이만 남았다. 창선이는 누렁이에게도 트집을 걸었다. 그러자 누렁이도 어디론가 가버렸다. 창선이는 외롭고 아파서 울고만싶었다. 창선이는 눈이 빠지게 리운이만 기다렸다. 리운이에게서는 사과냄새가 풍겼기 때문이다.

《사과, 사과, 사과누나, 사과...》

《이젠 사과가 없어. 정말이야!》

창선이는 리운이의 치마끝에 매달려 애원했다.

《없어, 정말이야!》

리운이는 뻥 소리를 질렀다. 창선이는 와— 울음을 터뜨렸다.

참으로 딱한 일이였다. 리운이는 엄마가 사과 다섯알

을 움에 감추어둔 일을 알고있었다. 그때는 집집마다 고향에서 가져온 식량이 떨어져서 멸건 죽물과 풀뿌리로 겨우 살아가고있었다. 엄마는 무슨 까닭인지 그 사과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했다.

(얹는 창선에게 한알만 줄가?)

리운이는 움에서 살그머니 사과 한알을 꺼내었다.

(한입만 톡 떼먹고 줄가?)

리운이는 잠간 망설였다. 결국 냄새만 맡고는 창선에게 주었다.

범두의 코는 이상한 코였다. 먼데서라도 사과냄새는 틀림없이 맡아내는 고양이코였다. 불쑥 나타나며 소리를 질렀다.

《할아버지는 똑같이 나눠먹으라고 했어!》

《창선이는 아프니까 혼자 먹어두 돼!》

범두와 영호는 목에 피대를 세우며 옥신각신했고 리운이는 둘을 말렸다. 그러다가 셋은 창선이의 입에서 부서져 내리는 사과를 보며 꿀꺽 군침을 삼켰다.

그렇게 여러날이 지난 어느날, 리운이 엄마는 리운이를 불렀다.

《애야, 움에 들어가 사과를 가져오렴. 남의 땅 청국이지만 아빠에게 고향의 사과를 맛보게 해야지. 오늘이 아빠의 제사란다.》

엄마의 말을 듣자마자 리운이는 허겁지겁 산으로 달렸다. 가슴이 통당통당 요란스레 뛰었다.

《아아,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사과는 한알만 남지 않았는데...》